



오늘은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의 칼럼, “한반도에 중국·일본 군대 들어오는 날” 일부를 소개하며 시작하겠다.

“북한 정권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를 경우, 북한의 주민·영토에 대한 관할권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헌법상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남북전쟁 당시의 미국이나 분단기의 동서독 관계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특수 관계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어제 오늘 도쿄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안보 토의(DTT)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북한 지역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남한 영토에 무단으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는 ‘침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현실화했을 때 행여 북한에 진주하려고 들지도 모를 중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일본의 괴이한 발언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51023/74337089/1>

구한말, 청나라가 또 일본이 조선을 우습게 여기고 멋대로 군대를 진주시켜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던 역사까지 반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 또는 국민 보위보다 정권 보위에만 관심 있는 정부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본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압담함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이 시작되자 문재인 대표가 먼저 국정 교과서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 안타깝다며 현대사를 패배주의로 가르치는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누리과정은) 당초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던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좋은 것 같습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 회장의 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월요일부터 휴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거리시위에 나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투명해진 데다 정부가 약속한 보육료 인상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도록 법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이 정부지원 없이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년도 지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jtbc)

○…“회의를 하고 나면 서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라고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한국의 유효한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발언을 누락시켰다 뒤늦게 인정해 구

설수에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이 이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러자 오후 들어 한국을 방문 중인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정면 반박을 한 겁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가 출간됐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01>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www.facebook.com/CBH.ComeBackHome>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차과장중고차 010-5556-6885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한국일보] 文 "경제 어려운데 왜 국정화를…" 金 "그만하라" 고성 오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22일 청와대 회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정면충돌해 국정화 정국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날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먼저 꺼냈다.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이후 30분 넘게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당시 테이블에서 했다고 주장한 이 발언이 주목된다. “국정 교과서 집필진도 구성 안됐고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발언을) 참고 있는데 그만해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 우려되면 집필에 참여해서 막으면 될 것 아니냐.” 참는 건 김무성 대표 특기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청와대로부터 그 모진 수모를 당했을 때도 끝까지 참았으니.

<http://www.hankookilbo.com/v/09598aa0d17b4c0790ee0e795742f726>

[한국일보] 국정화 반대로 기우는 여론… 초조해진 새누리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렇게 국정화를 반대하는 야당을 목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국일보 또 다른 기사를 보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찬성 의견을 처음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팽팽하던 찬·반 여론이 반대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등 ‘국정화 역풍’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내년 총선 전략에 빨간 불이 들었다며 초조해 하는 기색이 더욱 역력해졌다.

여권은 기대했던 ‘보수층 결집’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정화는 친일·독재 미화’라는 야권의 공세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데 대해 당

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출구전략'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부산 영도에 지역구를 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렇다. 대부분 영남이 지역구인 친박도 마찬가지.

<http://www.hankookilbo.com/v/d9ada3cc68604123a69d2a725074a222>

[경향신문] [사면초가 국정교과서] 국정화 지지 인사들 보 니... '친박·뉴라이트·비역사전공자'

역사학계의 국정화 반대 물결이 커져가는 속에서 지난 16일 102명의 교수단이 실명으로 찬성 목소리를 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소속·전공을 밝히지 않아 '동명인 피해'로 고통 받는 교수도 속출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향후 국정교과서 제작 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병풍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교수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일하거나 전직 고위관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로 드러났다. 이 내용은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선언에 참여한 광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 전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추진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린 친박 인사다.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은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이사를 맡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했다. 광창신 세종대 부총장은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교육부 관료 출신이다. 김성조 한국체대 총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경북 구미)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친박' 인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등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이다.

뉴라이트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그렇다. 지난해 수업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일베 교수'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도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속 학교·전공을 밝히지 않아 동명인 교수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추측이 난무하지만, 지지선언 참여 교수들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22315345&code=940401

[한겨레] '국정화 주도' 원로 사학자 3인방, 86년엔 "국정화, 시대에 안 맞아"

이 와중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원로 사학자 3명에게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공교롭게도 '1986년 문교부 정책과제 연구비에 의한 논문'을 보면, '연구자'로 적혀 있는 8명의 명단 가운데 모두 포함돼 있다.

보고서 22쪽을 보면 "국사 교과서가 1종 즉 국정으로 발행되는 것은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심각하다는 견해가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고, 이는 학계나 교육계의 일치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 "국정 도서로 변경해야 했던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시대가 훨씬 경과되었고, 정치·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학문적 수준이나 국민의 의식수준도 그에 못지않게 향상된 현실에서 볼 때 1종 도서로서의 문제점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시엔 검인정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066.html

[한겨레] [단독] MB정부 국편위원장 "국정화하더라도 2년 짜리...애들만 피해봐"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 한겨레 기자와 만났다.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인) 2년짜리밖에 안 된다. 애들한테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하더니 "국정화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981년 서울대 국사학과 최초의 여성 교수로 임용됐던 그는 조선 후기 지성사 연구의 권위자이며, 대표적인 중도적 역사학자로 평가된다. 정 명예교수는 그러면서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길인데 지금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한 가지 해석만 강요하려 드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말했다.

정 명예교수는 국사편찬위원장(2008.3 ~2010.9)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내려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글쓰기 등 공적인 활동을 스스로 삼가왔다. 그는 이날도 "인생에서 만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은퇴 후에는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4174.html?fr=mt2>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국정교과서 불가피성은 얼마나 급조된 것인지도 논리적 정당성이 미흡한 것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단 하나의 교과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대변인이 박정희 비밀독립군설을 보면 역사 교육의 미래가 암담해진다.

■ 뉴스의 재구성

10월 2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장우 대변인.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백강 조경환 선생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을 했다."

이런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

그러나, 독립운동가 장준하 전문가이며, 인권운동가인 고상만 씨가 10월 2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모두에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 칼럼을 인용했는데, 비랑 끝에 몰린 한국 외교를 짚는 칼럼 또 하나 더 소개한다. 이번엔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의 '박근혜 대통령의 엉뚱한 답변'이다.

[한겨레] [아침 햇빛] 박근혜 대통령의 엉뚱한 답변 (박찬수 논설위원)

"2015년 10월18일의 한-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공동성명을 냈다는 자랑과 별개로, 기자회견에선 한국의 '중국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백미는 이것이다. 오바마 발언이 있기 전에 미국의 기자가 박 대통령에게 물었다. "최근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 지도자와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까?"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것에 적잖게 신경 쓰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 대답은 이랬다. "전승절에 중국, 러시아 지도자와 얘기했는데, 북한 핵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 그런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답변이었다.

미국 기자의 질문이나 오바마 대통령 발언이나 핵심은 같다.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가 그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영어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답변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번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제1의 관심사는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받았을 때 박 대통령은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라고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날 박 대통령 태도는 달랐다. 이런 질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 뿐더러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듯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박 대통령은 ‘미국은 한-중 관계를 충분히 이해한다. 아무 문제없다’는 외교 참모들의 말만 믿고 워싱턴에 갔다가 기자회견장에서 뜻밖의 상황에 마주쳤을 것이다.

한-미 동맹이 지고지순의 선은 아니다. 미국의 불만을 모두 들어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상황 인식만은 냉철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강대국의 세력다툼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 현 정권은 그 기본에서 실패하고 있다. ‘한국이 미·중 양쪽의 러브콜을 받는 건 축복’(윤병세 장관)이란 듣기 좋은 말에만 대통령은 푹 파묻혀 있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외교 실패를 대통령은 실패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032.html>

이 칼럼을 통해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무대에서 동문서답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격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日방위상 “한국 지배 범위 발언 비공개 합의 안했다”… 국방부 해명 전면 부인 日에 또 뒤통수 맞았다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이 22일 이틀 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한 발언을 비공개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국방부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또다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고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방부가 또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공개 협의가 없었다는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 당국자는 그를 진중하는 자리에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고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1494&code=11122100&sid1=all>

[한겨레] 독일기업 인턴 13명…왜 2명만 갔나

지난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수빈 씨, 가명이다. 김수빈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7월에 낸 ‘독일 중소기업 해외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응모해 합격했다.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견실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여섯 달 동안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13명 모집에 144명이 지원해 11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이 사업은 청년고용 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의 하나다. 케이무브는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에 취업·인턴·봉사·창업 형태로 청년을 내보내는 사업이다. 김씨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진행해 믿음이 갔고, 여섯 달 뒤 정규직 전환 기회도 있다고 해서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8월10일 서울 서초고용센터에서 시작된 2주 교육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단 쪽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공단은 대학 재학생은 여섯 달짜리 인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졸업생은 석 달 이상 체류가 불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지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공고문에 신청자 자격 조건으로 “대졸”이라고 적혀 있었고, 인턴 합격자 대부분은 졸업자였다. 공단 쪽이 가장 기초적인 비자 발급 자격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공단 쪽은 “독일 쪽과 양해각서를 맺을 계획이니 일단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출국 예정 시기인 8월과 9월이 지나도 공단 쪽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생들은 다른 외국기업 인턴에 면접 보러 갈 기회를 놓쳤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턴에 지망한 이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14077.html>

[경향신문] ‘해군 장학생’ 시력 떨어지자 해군 “장학금 반환” 고지서

충남대 군사학부 해군학 전공자인 3학년 휴학생인 ㄱ씨. 올 초까지만 해도 2년 후엔 그렇게 열망하던 해군장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ㄱ씨는 중학교 때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펼치는 온갖 해양 캠프에 참여하고, 고교 때는 우수학생만 받는 ‘해군사관학교 캠프’를 2번이나 다녀오는 등 해군장교가 되기 위한 길을 일찌감치 걷기 시작했다. 2013년 해군장교 임용이 보장된 충남대 군사학부에 입학했고, 4년간 부모에게 등록금 부담도 지우지 않는 ‘해군 장학생’ 혜택도 받게 됐다. 그동안 학과공부는 물론 ‘해군실습’ 등 군사관련 활동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던 지난 2월 군병원 정례신체 검사에서 “오른쪽 눈 시력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매년 받는 신체검사서 아무런 이상이 없던 눈이 1년 새 갑자기 나빠진 것이다.

회복이 안 되면 장교가 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벌어진 것이다. 치료와 휴식을 위해 곧바로 3학년을 휴학했다. 그런데 지난 6월 해군 본부로부터 2년 동안 받은 장학금 1498만원을 반환하라는 납입고지서가 날아왔다. 곧바로 교육부와 대학, 해군본부에 “시력저하는 현실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아니냐”며 부당성을 따졌다. 하지만 3개 관련부서의 입장이 서로 달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안 된다, 해군본부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한 보증보험회사는 ㄱ군에게 “1498만원을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매달 6%, 9%, 12% 가산세가 붙게 된다”는 ‘장학금 반환요구서’를 전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22301255&code=940100

[국민일보] 건보 혜택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보다 빠르게 증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4년 사이 47.5% 증가해 23조대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다. 이에 비해 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5.3% 늘어난 12조대였다. 비급여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를 늘리고 있어서다. 병원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수익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의료기술 발달로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시행되는 영향도 있다.

이처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관리하기보다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를 한다는 게 정책 방향이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3년 62%로 되레 낮아졌다. 보장성이 강화되는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탓이다.

[세계일보] [단독] 檢·警, 영남 기초의원 '거액살포 의혹' 내사 착수

김·경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영남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인 L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초의원 K씨가 거액을 쓴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K씨는 선거 후 L의원에게 자신이 사용한 총선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K씨는 2012년 3월 말쯤 전직 군수 2명에게 측근을 통해 각각 현금 6000만원과 9000만원을 전달하고 1억 원은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은 지방의원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영남권 비박 물갈이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당장 L의원이 비박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겠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22/20151022004313.html>

[중앙일보] [단독] 설립자가 낸 재산은 돌려받고, 부실대학 문 닫게 해준다

부실 사립대학의 설립자가 대학에 출연한 만큼 즉 출연금에 더해 이에 대한 물가상승 반영 분을 돌려받고 스스로 대학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그동안 부실 사립대에 퇴로를 열어주는 논의는 많았지만 설립자에게 대학 재산을 얼마나 돌려줄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했다.

■ 날씨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오늘 다시 동쪽에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다. 특히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모두 크게 떨어지겠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국일보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 '나 홀로 사회'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내가 느끼는 아이러니는 두 가지다. 흔히 개인주의가 과도하게 발전한 서구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이 외려 긴밀하다는 게 하나라면, 공동체주의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더

높다는 게 다른 하나다. 짧게는 외환위기 이후, 길게는 산업화 이후, 생태론자 안승준이 일찍이 지적했듯, 공동체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모더니티의 그늘인 셈이다.

고립무원의 관계를 낳은 원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에서 문화적 단절,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사회적 관계는 사실 임시적이고,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만이 의미 있는 관계이며, 나이가 들면 그 가족마저 멀어지면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는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일궈온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회통합을 원점에서 다시 성찰하고 국가와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

나 홀로 산책, 나 홀로 티브이 보기, 나 홀로 밥 먹기 등을 포함한 '나 홀로 사회'는 결코 소망스러운 미래가 아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인 정호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동시에 외로우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대단히 소중한 가치다."

<http://www.hankookilbo.com/v/a7c6757884194e1ea294c78ff094b680>

우리가 지향할 세상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세상이어야 한다. 석간에서 뵈겠다.

∴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코너 공화국 논평 원고

벌치 7그램을 하사하시며 청년들에게 러키세븐 행운을 기원하신, 영원한 젊은 언니, 청년들의 벗, 청년 행복시대의 문지기 대통령 박그네 동지께서는 조성된 이른바 이재명 박원순의 청년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박 동지의 애원결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김무성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그네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해고가 쉬운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저급한 썸마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침으로써, 청년들에게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일깨우시려는 숭고한 뜻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며 청년들에게 일 안해도 1년에 100만원이 나온다면 나태와 불성실을 조장하는 이재명 박원순은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뺨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천추의 용납 못할 망나니짓이다.

석고대죄하며 박그네 동지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빌어야 할 이재명은 "그러면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에 노인에 대한 표연기 정책이나"며 고개를 뺏뺏이 들고 목청 높이는데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추후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김무성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우기 위해 이재명을 주민등록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은 또한 박 동지 아빠를 비밀 독립군으로 둔갑하던 그 시나리오 작가를 영입해 투명 인간이 박원순 아들을 대신해 MRI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박원순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마타도어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헬조선 정부의 그늘 아래에서 그 누구라도 박 동지보다 복지를 잘 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재명 박원순이 또 잡힌다면, 김무성 너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경질동지할 불벼락 시즌2가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월~금 오후 6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올바른
신앙관 확립을 위한
살핀로마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서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로마서 해설서,
객관적 논증을 근거로
비신자 대중의 눈높이에
충실하게 맞췄습니다.

